

美 배아은행 등장... 태어날 아기 컴퓨터 사진까지 보고 구입

“아기가 상품이나” 윤리 논란

인간의 정자와 난자를 아예 결합시킨 배아를 만들어 아기를 원하는 미혼녀나 불임자, 동성애자 등에게 판매하는 '배아은행'이 미국에 등장해 '아기가 상품이나'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6일 보도했다.

미국 텍사스주 샌 앤토니오에 있는 '에이브러햄 생명센터'라는 회사는 세계 최초로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를 기증받아 이를 배아로 만든 뒤, 임신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회사는 애리조나주의 한 백인 여대생으로부터 기증받은 난자와 정자은행에서 구한 백인 남성 변호사의 정자로 22개의 배아를 만들어, 이를 주문한 2명의 여성에게 각각 배아 2개씩 임신 시술을 마쳤다.

또 유대주의 한 항공사 여승무원 난자와 뉴욕주 의사 남성의 정자로 만든 배아를 곧

주문 여성에게 시술할 예정이다.

배아 주문자들은 난자 및 정자 제공자들의 학력, 외모, 성격, 건강 등 자세한 신상 정보를 미리 설정하고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모습과 성인이 됐을 때의 컴퓨터 사진까지도 볼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회사측은 난자 제공자를 대졸 이상의 20대, 정자 제공자는 박사나 변호사 등 고학력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엄격한 신체검사와 성장 환경, 기호, 가족사, 정신질환 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만들어진 배아의 가격은 2천500달러, 임신시술까지 합쳐 아기를 갖는데 드는 비용이 총 1만달러 미만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150명이 넘는 부부들이 배아 시

술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배아은행이 등장한데 대해 인간의 출생을 상품화한 듯 한다는 등의 비난 여론이 거세다.

켄터키주 루이스빌대의 마크 로스타인 생명윤리학 교수는 “우리는 갈수록 아기를 상품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그런 컴퓨터를 사는 것과 같다. 규격을 주고 원하는 컴퓨터를 주문하는 것과 똑같지만 아기와 상품을 같은 식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프린스턴대의 로버트 조지 교수는 배아은행의 등장으로 인간의 상품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더욱 뚜렷해졌으며, 사람들이 지능지수와 학력 등에 따라 맞춤형 아기를 가지려는 풍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살아있는 최악 독재자’ 北 김정일 2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존하는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두번째 최악의 독재자로 지목됐다.

미국 ABC 방송 인터넷판은 6일 독재자 연구가 데이비드 왈킨스키의 말을 인용, 최악의 독재자 5명을 소개했다.

왈킨스키는 김정일을 두번째 최악의 독재자로 꼽은 뒤 김정일은 작년 핵무기 실험으로 널리 알려진 ‘홍미로운 인물’이라면서 다른 독재

美 ABC 인터넷판 5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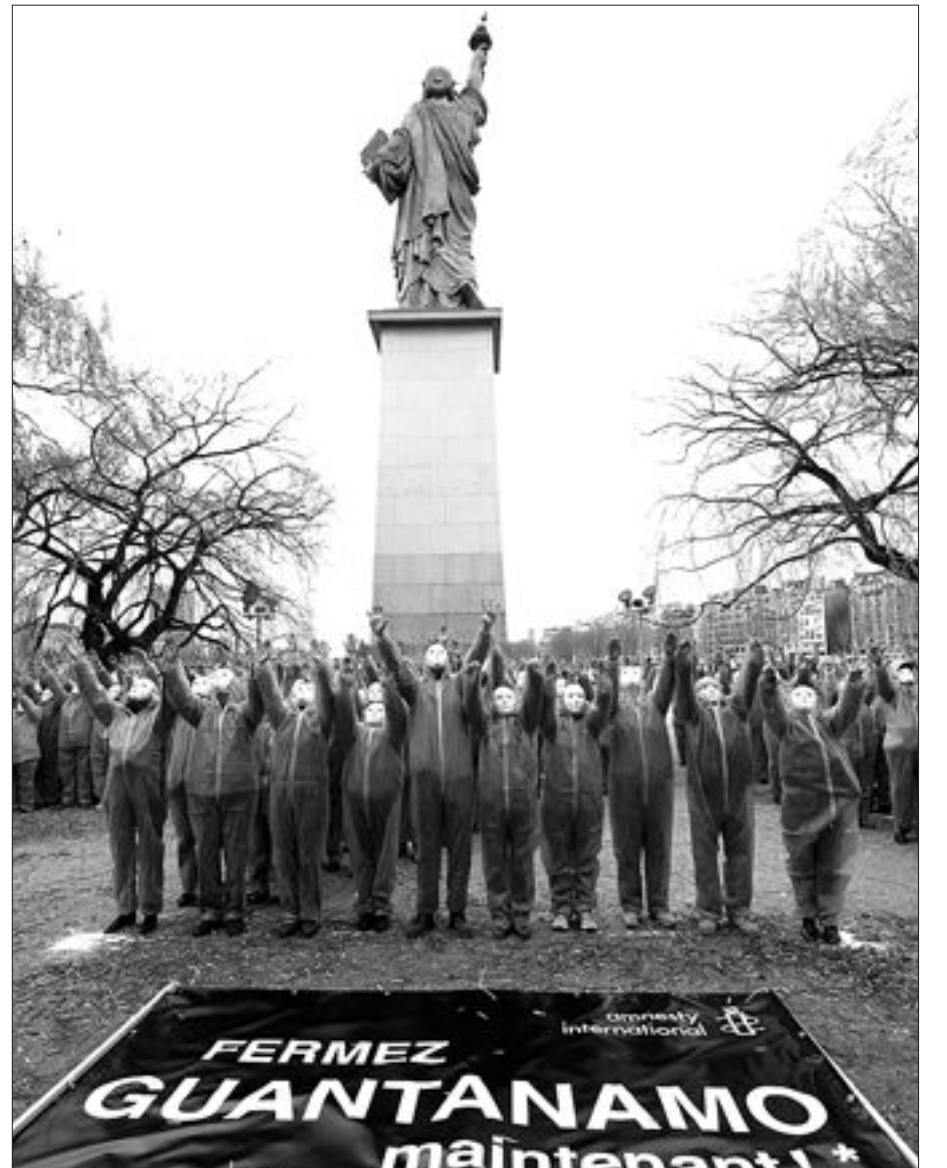
1위는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

자들과 달리 북한을 아주 극단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주민들은 외부정보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최악의 독재자 1위로는 18년 전 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뒤 최근 다르푸르 사태로 수십만명을 숨지게 한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을 꼽았다.

최악의 독재자 3위에는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이니, 4위엔 후진타오 중국 주석, 5위엔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 왕을 각각 지목했다

연합뉴스



“관타나모 수용자 석방하라” 6일 파리 관타나모 미해군기지수용소에 갇혀 있는 420명의 죄수를 상징하는 같은 숫자의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은 엠네스티인터내셔널 행동대원들이 미국 자유여성상 레플리카 앞에서 죄수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사형제 발원’ 潘총장 이번엔 “후세인 측근 사형 반대”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사형을 계기로 사형제에 반대하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6일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세인 측근 2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중단할 것을 이라크 정부에 촉구했다.

유엔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반 총장은 가까운 장래에 사형에 처해질 이들에 대한 형집행을 중지해 줄 것을 이라크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반 총장의 비서실장인 비자이 남비아르는 후세인 측근 2명에 대한 사형집행 중단을 촉구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대한 반 총장의 지지를 거듭 강조하는 서한을 유엔 이라크 대표부에 전달했다.

유엔본부=연합뉴스

새 진용 구성... 유엔 개혁 시동

■ 취임 1주일 보낸 반기문 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각종 국제 현안을 다뤄야 하는 세계 최고의 외교관으로서 바쁜 첫 일주일을 보냈다.

◇사형제 발원으로 신고식=반 총장은 지난 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후세인 처형에 관한 질문에 “사형은 각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반 총장의 발언은 사형제에 관한 유엔 회원국의 총의가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회원국별로 다른 사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형을 반대해 온 코피 아난 전 총장이나 루이즈 아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입장과 달리 문제가 된 것이다.

◇유엔 개혁 시동=반 총장은 지난달 31일 비서실장에 인도출신의 비자이 남비아르 전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을, 대변인에 아이티 출신 방송인 미셀 퐁타스를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3일 인도문제와 행정운영 담당 사무차장에 영국 출신 존 홀름스와 멕시코의 알리시아 바르세나를, 5일에는 유엔 사무국 서열 2위인 사무부총장에 탄자니아의 여성 외무장관인 아사-로스 미기로를 임명, 새 진용을 갖춰나가고 있다.

또한 취임 첫날 재산명세서를 윤리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외부 금융기관의 검토절차가 끝나도록 이를 일련에 공개할 계획이다.

반 총장은 또 오전 9시 출근이 일반적인 유엔의 관례를 깨고 오전 8시에 출근해 유엔 사무국의 근무 분위기를 쇄신 시도하고 있다. 한국식의 ‘부지런함’을 유엔 전파해 열심히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뉴욕=연합뉴스

“이라크에 미군 3만명 증파”

부시, 새 이라크정책 9일 발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이라크에 최고 3만명의 병력을 증파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의 일요판 신문인 옵서버 인터넷판이 7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라크 추가 파병 등을 포함한 부시 대통령의 새 이라크 전략이 오는 9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1만명에서 최고 3만명에 이르는 5개 여단병력을 추가로 배치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안정시키는 것이 새 이라크 전략의 핵심이다. 3만명의 병력이 추가로 배치될 경우 이라크 주둔 미군 수는

17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철수 시간표를 마련하기보다 이라크에 병력을 증파하기로 결심한 것은 이라크연구그룹(ISG)의 보고서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또 민주당이 장악한 상·하원과의 일전을 위한 사전 준비 조치로 신문은 풀이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5일 존 네그로폰테 국가정보국장을 국무부 부(副)장관에, 후임 정보국장에는 마이크 매크널 퇴역해군제독을 각각 지명하는 등 국무부와 정보부서 및 군수뇌부 개편을 단행했다.

연합뉴스

교원임용고시의 모든것!

박내영고시학원 겨울방학특강

부족은 학습법입니다. 박내영고시학원 www.paknae.com

시간상 사립고시학원 최고수준의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 합격률 보장. 100% 취업률 보장.

박내영고시학원 063-529-0090

경동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높이온 열도시 가정을 위해 특별보급합니다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 500만원 이하의 구입 금액 시 10%의 특별보급금

- ▶ 고효율 심야 전기 보일러를 특별보급
- ▶ 100% 보증 기간을 보장합니다
- ▶ 100% 안전성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 ▶ 100% 안전성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 100% 안전성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경동보일러 0621673-4981

전남 010-9469-9373

2007년 中國 명문대학 입학반 모집

2007년 9월 중국대학 입학

2007년 9월 중국대학 입학

2007년 9월 중국대학 입학

中國 명문대학 입학 설명회

中國語學院

www.chinesechina.com